

34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시골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수시로 횡포를 부리더니, 어느 날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한다. 그러자 부자는 서울 형조에 송사를 제기하지만 친척이 미리 관원들에게 뇌물을 준다. 부자는 결국 재판에 지게 되어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반드시 관전(官前) 발악(發惡)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법대로 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게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지한 사령 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혈(瘀血)만 될 것이니 어찌할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재판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 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

하고, 다시 일어서 계단 아래에 가까이 앉으며 하는 말이,
“소인이 천 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 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에 이야기 들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격정되는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하는 말이,

“네 분디 시골에 있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로되, 네 원이나 풀어 줄 것이니 무슨 말인고 아뢰어라.”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피꼬리, 삐죽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제기한다. 그런데 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는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미리 청탁을 한다. 날이 밝아 세 짐승이 황새 앞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피꼬리 먼저 날아들어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뢰되,
“소인은 바야흐로 봄이 한창 화창한 좋은 시절에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앞내의 버들빛은 초록장 드리운 듯, 뒷내의 버들빛은 유록장 드리운 듯, 금빛 같은 이내 몸이 날아들고 떠들면서 흥에 겨워 청아(清雅)하고 옥을 깨뜨릴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춘풍결에 흘날리며 봄의 석 달 동안 보낼 적에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

황새 한 번 들으며 과연 제 말과 같아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좋다 하면 따오기에게 청 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요, 좋지 못하다 한즉 내 공정치 못한 판결로 정체가 손상할지라. 반나절이나 깊이 생각한 끝에 판결하여 이르되,

┌ “네 들어라. 당시(唐詩)에 타기황앵아(打起黃鶯兒) 막교지상제(莫教枝上啼)”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아름다
└ 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도다.”

피꼬리 점점히 물러 나올 새, 또 삐죽새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소인은 녹수청산(綠水靑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萬壑千峯)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 되며, 구름이 걷히고 많은

신기한 봉우리로 별세계가 펼쳐졌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림을 드리운 듯 송풍(松風)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이내 소리 만첩청산의 아름다운 새 소리가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하리이까.”

황새 듣고 여러모로 생각해 본 후 판결하되,
“월락자규제(月落子規啼) 초국천일애(楚國千日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을 떠오르게 하니, 가히 불쌍하도다.”

하니, 삐죽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가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마 남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나직이 하여 한 번 소리를 주하며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윽고 달리 풀쳐 고향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며 이른 말이,

“쾌재(快哉)며 장자(長者)로다. 화난 감정이 일시에 터져 나와서 큰 소리로 꾸짖음은 옛날 황장군(黃將軍)의 위풍이요, 장판교(長坂橋) 다리 위에 백만 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소이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이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上聲)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즉 잘못 판결하여 그 피꼬리와 삐죽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 하오리이까. 이러한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 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였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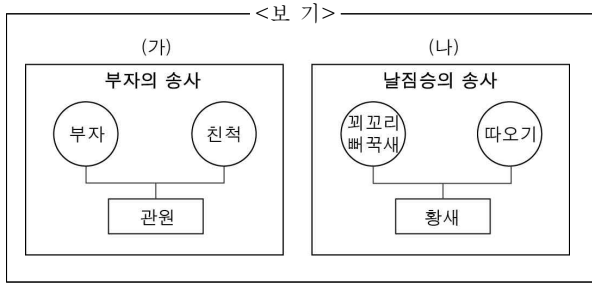
하니, 형조 관원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작자 미상, 「황새결승」 -

* 타기황앵아 막교지상제: ‘피꼬리를 날려 보내어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는 뜻으로 전쟁으로 헤어진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음.
* 월락자규제 초국천일애: ‘달이 지고 두견이 우니 초나라 천일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암시함.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였군.
-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군.
- ③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군.
- ④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군.
- ⑤ ‘피꼬리’는 자신의 소리를 누구든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

2. 윗글에 나타난 송사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 ②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 ③ (가)의 결과는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이고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 ⑤ (가)와 (나) 모두 청탁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부자’가 이야기를 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원들에게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 ② 무식한 관원에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 ③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 ④ 예상과 다른 판결에 대해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 ⑤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로 인해 잃게 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4. [A]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한다고 할 때,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황새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 태도를 보이고 있군.”

- | | |
|--------------|--------------|
| ① 건강부회(牽強附會)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 ④ 배은망덕(背恩忘德) |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 |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보씨는 친구 H의 결혼식에 가면서 문득, 이례적으로, 부조금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별안간, 그러면 대체 소설이 무얼까, 소설가란 무얼까, 하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보씨는 참 우스운 사람이다. 물론, 그 순간, 골목길에 멈춰선 구보씨도 스스로가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

소설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하고 구보씨는 스스로에게 대담해보았다. 밀도 끝도 없이, 정말 그런 걸까. 구보씨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그래서 친구 결혼식에 부조금도 못 낸단, 아니 안 낸단 말인가. 그러면 성공하면 낸다는 말인가. 성공한다는 게 뭐가. 소설가도 성공할 수 있는 건가. 구보씨 스스로 소설가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성공하면 이미 소설가가 아니지 않는가. 그 ‘성공’이라는 말이 ‘소설에 관한 한 성공’이라면 모르되 말이다. 소설에 관한 한 성공은 곧 세상에서의 더 큰 실패가 아닐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소설가로선 실패하는 것이다.

(중략)

“어이, 구보 아나. 오래간만인데.”

K였다. 대학 동기다. 구보씨는 멍청한 표정으로 그와 악수했다.

“소설 쓴다며? 너밖에 없구나. 난 학교 때도 그놈의 문학은 영 모르겠더라구. 학과 선택에 실패했나봐, 난. 그래서 취직했지.”

K는 웬일인지 호들갑스러웠다. 구보씨는 말을 잇은 듯 K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다. K가 너무 이질적으로 보였다. 하긴 K도 구보씨를 이질적으로 보고 있었겠지만. 구보씨가 아무 말이 없자 K는 계속 혼자 말해야 했다.

“너 소설 쓰느라 피곤한 모양이구나. 돈은 좀 벌리냐? 소설을 돈 벌라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구는 살아야지.”

“조금. 5·16 이후에 어디 조선 땅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있었나.”

구보씨가 대답했다. 그의 첫마디였다.

“그래. 어쨌든 한국 자본주의가 많이 컸어.”

① K는 구보씨가 비꼬아서 말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K가 무슨 죄가 있으랴. 비꼬는 구보씨가 나쁘지. “그런데, H 이 자식, 돈 좀 벌었나보더라.”

“돈?”

K의 말인즉슨, H의 출판사에서 낸 책이 요즘 장안의 지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였다. 돈 벌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던가 이렇게 살면 돈 번다, 라던가 아무튼 그런 책인데, 성공한 자본가들의 체험담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구보씨도 그런 책이 있다는 소릴 들은 것도 같았다. 그 책이 잘 팔린단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돈을 벌다니. 돈 번 사람들의 이야기로 돈을 벌다니. 책이라는 게 뭐가. 글을 쓴다는 건 또 뭐가. 요즘 사람들엔 대체별 총수들이 쓴 책을 즐겨 사 본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필가는 성공한 대자본가인 것 같다. 소설가나 시인이 쓴 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밤낮 뭐가 잘 안 되는 이야기나 써놓은 책을 볼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나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성공의 척도는 돈이다. 모두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얼마나 착취했건, 독재 정권과 얼마나 추악한 거래를

했건,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했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었다. 도덕이니 정의니 가치니 이런 말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다.

“돈 좀 버니까 사람들 꼬이는 거 봐라.”

K가 말했다. 구보씨는 그제서야 다시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 식당 쪽을 바라보았다.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짝 차 있었다.

“친구들은 많이 왔지?”

구보씨가 물었다.

“많이 왔더라.”

“어떻게 지낸다디?”

“뭘, 다 그렇지.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넌 뭐하니?”

“㉠ 보험. 증권은 한물갔잖아. 그 다음은 보험이야.”

“그래?”

“결혼식이 다 끝났나보다. 가서 사진이나 찍자.”

“먼저 가. 나는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지.”

K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구보씨는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구보씨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빌어먹을. H가 돈을 벌었다네. 돈을 벌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던가 이렇게 살면 돈을 번다, 라던가 하는 책을 만들었다네. ㉡ 그래서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라네. 오지 말걸. 이제 다시는 사람 많이 모이는, 모여드는 곳엔 가지 말아야지.

구보씨는 담배를 끄고 결혼식장을 나가려다 그만 멈춰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 H의 모습을 보고 싶어졌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란 말은 항상 사람을 비장하게 만든다. 구보씨는 비장하게 결혼식장 입구로 걸어갔다. 그는 문밖에 선 채로 빠르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H가 보였다. H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내가 나와 함께 군부 독재와 독점 제벌을 타도하자던 H냐. ㉢ 구보씨가 서 있는 입구와 H가 서 있는 자리 사이에는 울긋불긋한 주단이 깔려 있었다. 구보씨는 그 주단을 밟고 뛰쳐나가 H의 멱살을 잡고 그 웃는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묻고 싶었다. 그러나 구보씨는 그러지 못했다. 그 대신 구보씨는 H의 얼굴과 그 주변에 늘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역시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아두었다. 대체로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 구보씨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두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 위해.

- 주인공, 「사잇길로 접어든 역사-소설가 구보씨의 하루2」 -

5.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② 장면 변화에 따른 인물의 심리가 암시된다.
- ③ 서술자가 교체되어 사건을 심층적으로 제시한다.
- ④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긴장감을 고조한다.
- 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는 K를 통해 H의 근황에 대해 듣게 된다.
- ② K와 구보는 오랜만에 H의 결혼식장에서 만난다.
- ③ 구보는 H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 ④ K는 H의 출판사에서 낸 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 ⑤ K는 H가 책으로 성공을 해서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한다.

7. <보기>는 윗글의 창작 동기가 된 소설의 일부이다. <보기>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도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 광무소: 광산 회사의 사무실.

- ① <보기>와 [B] 모두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당당히 맞서는 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 ② <보기>와 [B] 모두 문인들이 현실 타협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 ③ <보기>와 [B] 모두 자본가에 밀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문인들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
- ④ <보기>에는 문인들조차 돈을 좇는 현실이, [B]에는 돈을 추구하는 세태로 인해 소설가의 글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 있다.
- ⑤ <보기>에는 문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이유가, [B]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소설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부각되고 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K가 구보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K의 세속적 면모가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H의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한 구보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④ ㉣에는 과거와 달라진 H와 그를 바라보는 구보 사이의 거리감이 나타나 있다.
- ⑤ ㉣에는 친구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살아야겠다는 구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9~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①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신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10.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이 시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장면들을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그럼 시를 꼼꼼히 읽고 아래 장면들에서 각자 파악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장면 1]	[장면 2]	[장면 3]
진주 장터	진주 장터 오가는 길	골방

- ① [장면 1]은 생계를 위해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② [장면 1]은 팔리지 않은 고기를 통해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③ [장면 2]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니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④ [장면 2]는 오누이가 진주 남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⑤ [장면 3]은 장사하러 간 어머니를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오누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11. 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달빛을 보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의지를 연상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옹기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하며 어머니의 한을 떠올리고 있다.
- ③ 화자는 옹기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옹기전의 옹기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어머니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어 있다.
- ⑤ 화자는 달빛 받은 옹기들을 보며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옹기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스런 삶을 안쓰러워하고 있다.

[12~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چه거늘
 ㉠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 쑤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람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 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 이리저리 생각해도 건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났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벼들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시루 술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 세시(歲時)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接待)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화를 내어 이른 말이
 ㉤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늘
 들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피로 여윌려냐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설위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한아한: 춥고 굶주린.
 * 싸리피 바람이: 돌 모두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시경』의 한 구절로, '진떨에 난 장초나무 가지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자라남'을 뜻함.
 * 궁귀: 가난 귀신.
 * 추추분분: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 공혁: 울러대어 꾸짖음.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농사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화자의 궁핍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14.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기 > —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고
 한가로움이 많으니 병이 있어도 또한 괜찮아라
 향불을 사르다 보니 내리던 봄비 가늘어지고
 시구 찾다 보니 어느새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골목이 외져 길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이 없어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네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
 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기만 하네
 - 김효일, 「만홍」 -

-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군.
- ②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자연을 동경하고 있군.
- ③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군.
-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빠른정답.

4	2	3	1	5
4	4	5	2	4
2	1	3	5	

[1 ~ 3] (고전소설) 작자 미상, <황새결승>

1.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따오기’는 ‘황새’에게 미리 뇌물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겸손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부자는 ‘관전 발악’이라 해서 처벌 받을까 두려워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고 있다.
-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어 거짓으로 꾸짖고 있다.
- ③ 황새가 따오기의 소리가 ‘상성’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에게 받은 뇌물 때문이다.
- ⑤ 피꼬리는 자신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누가 아름답다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2.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 파악하기

(나)의 판결 이유는 (가)와 마찬가지로 청탁 때문이다. (나)는 (가)의 상황을 빗대어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 ① (가)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친척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 ③ (가)의 송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돈이지만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 ⑤ (가)에서는 친척이 관원에게 준 뇌물이, (나)에서는 따오기가 황새에게 준 뇌물이 송사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부자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무안함을 주기 위해 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의도는 송사와 관련된 형조 관원들의 부패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이 파악하기

[A]에서 황새는 피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억지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황새의 태도를 평가하는 말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함.’을 뜻하는 ‘건강부회’가 적절하다.

- ②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 ③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 ④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함.’을,
- ⑤는 ‘본보기가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한자성이었다.

[5 ~ 8] (현대소설) 주인석, <사잇길로 접어든 역사-소설가 구보씨의 하루2>

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서술자는 소설에 대한 고민, 변해버린 친구에 대한 쓸쓸함 등 구보의 내면도 제시하면서 ‘구보씨는 참 우스운 사람이다.’와 같이 구보에 대한 평가도 드러내고 있다.

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K는 구보에게 H의 출판사에서 낸 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① K는 구보에게 H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 ② ‘구보 야냐. 오래 간만인데.’라는 대사를 통해 두 사람이 오랜만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H가 돈을 번 사실에 구보는 ‘빌어먹을. H가 돈을 벌었다네.’라며 H의 먹살을 잡고 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K는 H가 성공해서 사람들이 H의 결혼식에 많이 왔다고 생각한다.

7.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에는 문인들조차 황금에 열광하는 상황이, [B]에는 소설가의 글보다 자본가에 관한 책이 인기를 얻는 상황이 나타난다.

- ① <보기>에는 ‘총독부’, [B]에는 ‘독재 정권’이라는 정치적 현실이 나타났으나, 이에 맞서는 문인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보기>에는 문인들이 황금을 좇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보기>와 [B] 모두 현실 타협적인 글쓰기의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B]에는 성공한 자본가의 책에 밀리는 문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보기>에서는 자본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보기>에는 문인들도 시류에 편승하여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B]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설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8. [출제의도] 구절 의미 파악하기

구보는 세속적 가치를 좇는 H와 친구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이들과 결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구보가 친구들과의 감정을 교류하며 위안을 얻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K가 증권이 한물가서 보험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구보는 H가 돈을 벌어 H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꼬여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구보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 11] (현대시) 박재삼, 「추억에서」

이 작품은 유년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한을 은전, 별빛, 밤빛, 옹기 등의 반짝임으로 형상

화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는 의문형 문장이 여러 차례 쓰였다. 2연의 ‘울엄매 의~한(恨)이던가.’와 4연의 ‘달빛 받은~것인가.’에는 고된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연민이 드러나 있다. 또 3연의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는 유년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0.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다.

‘진주 장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던 곳으로, 어머니의 한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골방’은 오누이가 장사 간 어머니를 간절히 기다리던 공간이다. 오누이가 강물을 바라보며 귀갓길을 염려하는 모습은 연상하기 어렵다.

11. [출제의도] 시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에서 옹기들이 달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이라고 표현한 데서, 독자는 어머니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연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의 한을 느낄 수 있다.

[12 ~ 14] (고전시가) 정훈, 「탄궁가」

이 작품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난한 상황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 가상의 청자와 대화하는 설정 등으로 인해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가사로 평가된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나라 빛과 이자는~어찌하여 차려낼꼬’, ‘시절이 풍년인들~몸을 어이 가릴고’ 등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어려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은 화자가 가난하여 나라 빛과 이자를 마련하기 어렵고,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난으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다.

14.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한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의 화자는 작품 전반에 걸쳐 가난하지만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이에 비해 윗글의 화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궁귀’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